

전남 시·군,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 ‘지지부진’

순천·광양 등 9곳 자체 소각장 없어
목포·보성 “연내 착공”... 7곳은 담보
지역 주민 반대 입지 선정부터 난항
SRF발전소, 내구연한·운영비 부담

2030년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신규 소각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주민 수용성’이 소각장 설치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는 최근 유치 의사를 보인 단체가 있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전남도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발목이 묶이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에 1곳이 유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대형 소각장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들과 함께 선진사례로 평가 받는 경기도 아산시의 생활자원처리시설을 둘러보는 등 기피시설인 소각장에서 기회시설인 자원순환시설로의 장점을 부각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남도 역시 소각장 설치사업이 시급하



광주시는 지난 3월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뉴스**

지만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자체 소각장이 없는 곳은 9곳(목포·순천·나주·광양·곡성·구례·함평·보성·화순)이다.

해당 지자체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건립하는 등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연내 착공 예정인 목포와 보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먼저 순천시는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순천시 월등면에 추진될 예정이던 소각장 건립 사업을 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했다. 현재 입지 선정위원회가 다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현재 입지예상지인 20여 곳에선 주민들이 유치 의사를 먼저 밝힌 곳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순천시는 소각장이 없는 구례군과 함께 광역 소

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곡성군도 소각장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최근까지 군은 공모와 재공모,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건의 유치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곡성군은 부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부지가 적합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소각장 설치를 광역으로 추진하려다 입

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광양시는 여수·순천과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려다 부지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오는 2029년까지 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나주시와 화순군의 경우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각장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SRF발전소는 내구연한이 존재하고 운영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다. 그러나 현재 나주·화순은 소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특히 화순군은 현재 사설 위탁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올해말부터 나주 SRF에 반입할 예정이어서 향후 운영비 상승 등도 예상된다. 화순군은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입지 선정, 설치 비용 등에 난관이 예상돼 소각장 설치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SRF발전소의 경우 생활폐기물 중 40%만 처리가 되고 60%는 다시 매립을 해야할 정도로 수율이 매우 떨어진다”며 “당장 SRF발전소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군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항지 기자**

정다운 시의원 “광주 도시계획위 강도높은 혁신 필요”

깜깜이·밀실 운영 등 지적

‘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시민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강도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운(더불어민주당·북구2·사진) 의원은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계위는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의 도시계획이 적정한 지 살피는,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 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이제 밀실 밖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도계위 혁신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도계위 혁신론이 잇따라 공



개 거론된다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의혹이 깔려 있다.

정 의원은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 운영 세칙,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 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 간 부결된 심의 안건 0건, 그리고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도계위 문제점에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점은 다행이지만 한층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채은지 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통과”

남성 13명 시의원과 공동 발의

광주시 공공기관과 향후 민간 부문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공정 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이 14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 등 광주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의미를 더했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 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



월한 기관과 개인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채 의원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평균 성별 임금 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27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여성 1만3000원, 남성 1만7000원으로 격차가 26.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으로 지역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